

물에 관한 명상

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부러워하거나
탐하지도 않는다

지름길을 버리고
먼 길도 돌아서 간다

평생을 제 키보다 긴 팔로
나무를 안으며 돌부리를 다듬으며 물고기를 부르고
새들의 발을 씻어준다

온 몸으로 대지를 적신다

바다 안에서도 자신의 얼굴을
바꾸지 않는다

어찌다 몸에 티끌이 묻거나
어둠의 터널을 지나도 하늘에 자신을 비추며
스스로를 정화시킨다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채찍질한다

사람도 물처럼 흘러야 한다
물처럼 살아야 한다

아무도 보거나 듣는 이 없어도
말하는 이 없어도

어쩌면 셈하는 이 없어도

날마다 진실의 거울 앞에 서서 몸과 마음을 씻는
사람

시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